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지상 설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욘기 19장 23 - 29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죽음에 직면한 욘은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써어졌으면, 철패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23-24절).

욘은 자기의 말이 철패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져 후일에 자기의 무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비문을 보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서 서실 것이라”(25절).

욘이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은 자기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나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부활의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직면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행복자가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있는 욘은 재림의 주님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습니다.

1. 욘은 부활을 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욘은 자기가 살던 우스 땅에 있는 무덤앞에 가서 자기가 갈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으로 죽음으로 인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서 이렇게 갈 것입니다. 앞서 간 성도들도 그들의 육신은 모두 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돌아간 인생은 다시 살아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부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도 기적이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친 것도 큰 기적이지만 그보다 큰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간 인생이 사람의 모양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내가 죽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26절).

욘은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부활교리이며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민족과 국가를 바라보며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어 낙심하고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 국가 앞에도 어려운 일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우리에게서 기쁨과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2. 욘은 무덤을 보며 현재적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25절).

‘대속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읽으며 친척(Kinsman)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친척은 빼앗긴 토지의 값을 지불하고 찾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보아스와 나오미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이론은 영과 육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육신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고, 죽음으로 인하여 육신을 빼앗깁니다. 영혼은 죽음으로 인해 빼앗긴 육신을 그리워하고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욘은 “나의 대속자, 나의 고엘이

살아계신다”고 외칩니다. 죽음은 죄값으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육신을 빼앗아 갔지만 대속자는 잃어버린 육신을 다시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대속자는 권능으로 대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므로 죽음의 힘이 아무리 셀지라도 하나님께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속자는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도 복수 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하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욘은 고엘을 모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대속자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원천이며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다시 나누어주시는 분입니다.

욘의 위로의 정점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대속자가 나의 대속자가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욘의 신앙은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3. 욘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그가 땅 위에서 서실 것이라”(25절).

욘의 비전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땅 위의 무덤들이 열리고 육신이 부활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재림하신 주님은 후일에 땅을 대적하여 서있을 것이다”라고 주석 합니다. 땅은 살인자들로

덮여 땅이 죽음의 낚음당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땅들에게 “땅아 네 죽음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무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들을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26절).

욘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욘은 죽음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후일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27절).

주님은 우리가 이미 만났던 분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빛을 갠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대에 가서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참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전율과 회의와 힘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활의 빛 속에서 죽음의 공포는 사라질 것입니다. 죽음은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한 시간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고 고백한 욘과 같이 이 말씀을 통해 재림의 주님으로 인해 진정한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롬15:16)

더욱 불타오르는 70인 전도대

-29일(수)부터 야간 전도대도 활동키로-

서울교회 전도의 첨병 70인 전도대가 2003년 가을을 맞아 더욱 불타오르고 있다.

현재 전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등 매주 3일을 전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70인 전도대는 낮 시간 동안 주로 주부들과 노인들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한계를 넘어 퇴근하는 직장인과 학원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는 중,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전도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오는 29일(수)부터 야간 전도대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야간 전도대는 매주 수요일 2부 예배를 마친 후 한티 공원에서 지나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차와 음료를 대접하며 복

음을 전하게 된다. 위하여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 드린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올해 전도역량 강화를 위해 총회 전도학교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1기-6기까지 총 81명의 훈련받은 전도 일꾼이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현재 70인 전도대 축호팀에 소속되어 목요일마다 지속적으로 인근 은마·청실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방문전도하여 400여명을 전도 등록시켰다.

한편, 현재 7기 27명이 주일 2시에 802호에서 전도교육을 받고 있다.

대학부에서도 전도학교를 열어

전도의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대학부(지도서명철목사)에서도 지난 토요일부터 전도학교를 개설하여 16명의 대학부 지체들이 모임 후 저녁 7시부터 전도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각조의 조장들로 12주 과정을 장년들과 같은 교육을 받으며 각 2명의 전도대상자를 정하여 실제훈련을 하게 된다. 미래 세대의 전도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 대학부에서 전도학교를 실시하는 일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또 이 일을 통해서 대학부가 영혼 구원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한층 부흥할 것으로 보이며 청년부에서도 여건이 되는대로 전도학교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 선교회 모임 갖는다

10월 28일(화) 오후 7시30분

의사(한방, 양방), 간호사, 약사 또는 의료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의 봉사기관인 의료선교회가 10월 28일(화) 오후 7시30분 802호 비전 홀에서 모임을 갖고 사역을 점검하고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의료선교회에서는 관련분야 성도들의 많은 참석을 기다리고 있다.

신혼가정부 특강

신혼가정부에서는 26일(주일) 오후 3시 30분 706호에서 월례 특강을 갖는다.

주제는 '아동을 위한 미술 심리치료'로 강사는 김금란 선생이 맡는다. 관심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석을 기다린다.

2003 사명자 대회 태신자 명단

이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강찬성 염미성 지병오 박준용 정윤복 심규동 이승탁 박노일 임양희 박혜민 박소영 이은미 노하진 조창현 김은영 조병관 이경순 박용목 채영이 박혜원 박광원 박성원 이태승 정진영 이동훈 이선민 이태재 왕중숙 한준규 오덕영 전용기 유하준 김철환 장임선 김영순 이희승 김창성 백용숙 이승의 이숙영 김현자 전형우 양미희 조정희 홍성진 김향순 이현숙 최경희 김병근 전용식 김은선 장창희 이기석 이우금 윤재영 최원 김인용 박두연 (다음 주 계속)

2003 사명자 대회 24시간 연속 기도표 (10월 27일 ~ 11월 1일)

시간·구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0.27(월) 4교구	한상운 김광신 윤운식 최치순 백혜숙	한상운 김광신 윤운식 최치순 백혜숙	한상운 김광신 윤운식 최치순 백혜숙	한상운 오정수 김찬용 정경자 김명준	한상운 오정수 김찬용 정경자 이현주	새벽기도회		김숙자 박용익 서경애 강민희	박우옥 주화인	박우옥	조용식 유명석 최중희 13-5 이미슈	승영강 전용순 13-5	장효옥 김중자	표명자 김복녀 이승희 최영자	정천수 김복녀 이승희 최영자	홍광옥 최양혜	마은숙 김현관	임훈규	윤봉준 김준제 박익서 김미자	김희진 김태기 윤문자 윤복순	서경애 오영숙 강영자	서경애 김중윤 이종철	김규태 박미애		
10.28(화) 11교구	오정식 노문환 임옥균	오정식 노문환 임옥균	오정식 노문환 임옥균	오정식 김태기 손병석	오정식 김태기 손병석			김정희 강민희	이영자 이경희 주화인	이현숙	국신옥 원복순 박이선	송미자 정수진	하숙	조정옥 신정순	정연택 임명숙 오성애	함정의 김양숙	송희숙 이명희	정경일 김사두열 손성실 13-11	이순희 이옥희 김선미 정경자	윤봉준 김선미 김혜영	곽숙	서경애 이승우	서경애 노문환 장정화	나옥녀	
10.29(수) 1교구	이용식 정병무 최홍열	이용식 정병무 최홍열	이용식 정병무 최홍열	이용식 홍정호 하인선	이용식 홍정호 하인선			이선희 심재술 박춘자	이남복 주화인	이남복	석상하 김인아 양호선 이옥란	수요일부 예배		정경자 김계순 김진실 김중자	김인숙 김명식 신정순 배영애	전숙영	전용순 신현이 주경자 이봉선	김명숙 서종숙 이년화 김안실	김현숙	수요일부 예배		서경애	서경애 손성실	김복숙	
10.30(목) 9교구	지혜영 최중시 이태원	지혜영 최중시 이태원	지혜영 최중시 이태원	지혜영 김대호 최양진	지혜영 김대호 최양진			이순녀 강민희	주화인 황재연	이영희	유묘중	김중자 강정옥 이영애 전용순	최영란 김중자	김순자	김미선	김숙화	가원정	신기숙	김복숙 김진숙	윤봉준 김혜정	김희진 이점숙 배효복 김미선	서경애 권순단	서경애 장영순	이규정	
10.31(금) 10교구	임규현 윤봉준 조철기	임규현 윤봉준 조철기	임규현 윤봉준 조철기	임규현 성준경 윤성남	임규현 성준경 윤성남			서경애 강민희	김은순 주화인	김은순	김미애 정경자 김미애	백정순	백정순	김영식 이애순	이애순	정용욱	신정순 정용욱	김상욱	윤봉준 김상욱	금요일 기도회		김희진 류종관	황지영 류종관	서경애 진선자 김재진 김수경	서경애 진선자 김재진 김수경
11.1(토) 5,6교구	이태훈 김영준 이동만	이태훈 김영준 이동만	이태훈 김영준 이동만	이태훈 이영기 최치순	이태훈 이영기 최치순			심재술 최소희 이윤영 서경애	최소희 이윤영 서경애	최소희 이윤영 여동욱	최소희 이윤영 장낙희	장낙희	장낙희	정경자	이윤영 김영희	이윤영 김영희	이윤영 김영희	이윤영 김영희	이윤영 김영희	이윤영 김영희	이윤영 김영희	대.청부 이학주 송인권 서명철 서경애	대.청부 서명철 서명철 서명철 서명철	대.청부 이학주 송인권 서명철 서명철	대.청부 이학주 송인권 서명철 서명철

장로가정 탐방- 김태기 장로 · 윤문자 권사 가정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김태기 장로님은 윤문자 권사님과 슬하에 어린 (강북삼성병원), 오른(건축설계사무소), 우선(유통회사 기획실) 삼형제를 선물로 받으셨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를 가족찬양으로 즐겨 드리시는 장로님 가정은 지난 수요일에 시간에 한빛, 다빛, 하은이 손녀 셋이 나란히 유아세례를 받아서 뜻깊은 한주일을 보내셨다고 한다.

장로님 가정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는 6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장로교회의 초대 목사 7인 중 한 분인 이기풍 목사님의 손자였던 친구의 인도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에 출석하게 된 장로님은 어려서부터 완고한 집안의 4대 종손으로 제사 때마다 쓰이는 지방과 축문을 엄격하게 교육받으며 수없이 사찰에 이끌려 다니기도 하셨다. 그 후 고교에 진학하면서 다시 적극적으로 권유해준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장로님은 이미 결혼 전에 집사 임직을 받으셨다고 한다.

배우자만큼은 독실한 신앙가정에서 맞이하길 싶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 지금의 권사님을 만나게 되셨는데, 권사님은 당시에도 이미 100년 전에 복음을 접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신 분으로 중증할 때니로부터 이어진 신앙은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 두 분의 순교와 더불어 권사님에게까지 철저하게 이어져 오고 있었다고. 긴 삶의 여정동안 권사님은 늘 장로님의 동역자로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고 한다. 올해로 장로 은퇴를 앞두고 계신 김태기 장로님은 1980년 광주 남부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고 서울교회 창립 준비 기도 모임에 함께 하시면서 서울교회와 인연을 맺게 되셨다.

현재 장로님은 각 남녀 선교회 및 전도회, 70인 전도대가 활동하는 전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다.

은퇴를 앞두고 이즈음 늘 장로님의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라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 9:4)가 그것이다. 세상 일에서도 은퇴하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주의 일을 사모하고 섬기는 데 정년과 은퇴는 없으며, 앞으로도 더욱 사모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장로님의 믿음이 엿보이는 말씀이다.

마지막으로 장로님은 이즈음 가장 즐겨 부르시는 찬송 "주와 같이 길가는 것"(456장)처럼 한결음 한결음 주예수와 함께 날마다 걷는 삶을,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혼란하고 어두운 이 때에 할 일 많은 주의 일꾼들에게는 아직 낮의 때라는 것과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더욱 힘써 해야 할 것을 당부하셨다.

오늘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기도와 헌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로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더욱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나소정(편집부)



고3제자들에게

은혜의 추억이 많음을 감사하며

손재영(고등부 교사)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꽤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지? 감기 걸린 친구들은 없는지 모르겠네? 건강 조심해야해 큰 시험 앞두고는... 고3이 되고 나서 보니까 모르던 얼굴이 많아진 것 같아.

참 세월이 빠른 것 같다. 중등부 마치고 막 고등부에 올라와서 고등부 첫수련회에 참석했던 것이 정말 엇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구나? 'Lock-In', '어름수련회', '아이노스의 밤' 등등 우리가 고등부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좋은 추억들이 많지? 생각만 해도 흐뭇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은혜의 추억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지 모르겠다. 그래! 하나님은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흐뭇한 추억을 많이 허락하셨다. 잘 깨닫지 못하고 지나간 시간 속을 잘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몰라. 지금은 큰 시험 앞에서 많이 긴장되고 감사의 여유가 없겠지만, 분명히 지금 우리가 통과하는 이 시간도 더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후 돌아보면 여전히 주님의 품 안에서 보낸 은혜의 시간으로 기억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고등부에 왔을 때 나도 고등부 교사를 시작했는데, 너희들이 떠날 때가 되니까 나도 고등부를 떠나게 되었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만남을 기뻐하시나보다. 바로 대학부에서 또 만나게 되었으니까 말이야. 남들은 많이 낙심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명자 대회-24시간 연속 기도

주여 내 니이다



김광신 장로(당회서기, 12교구)

큰 죄를 범한 자가 내 니이다. 악으로 치닫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니이다. 내가 범죄하였고 내가 죄를 잉태 하였나이다. 아담의 죄로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나의 죄가 내 속에 있사오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나를 묶고 있나이다. 내게 내려진 형벌과 진노와 심판이 그 증거이오며 나라가 이토록 위기인 것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한방울의 검정색 물감이 깨끗한 물을 더럽히듯이 내 죄가 세상을 어둡게 하였고 악을 조장시켰습니다. 떨어질 줄 모르는 죄악 때문에 나는 밤마다 신음하고 있사오며 내 뼈가 녹고 있나이다. 선에 속하기를 원하였고 십자가만 든든히 붙들기로 작정하지만 사탄은 나보다 앞서와서 내 앞에 올무를 놓았사오며 나는 그 덫에 넘어졌나이다.

내 모습이 초라하게 되었고 사망 직전의 강도 만난 자 같이 되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으나 그 약효가 길지를 못합니다. 내 죄 때문에 생겨난 비극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으며 마침내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내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띠끌과 재 가운데서 내 죄를 토설하고 주께만 고백하나다. 내 죄를 말갈게 씻기시고 깨끗케 하시어서 나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거두시고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명자 대회 기간 중에 무엇보다 먼저 내 죄를 다 토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힘입게 하시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내 입에서 불려 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므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연속 기도를 유리병에 담으시고 향내나는 제사를 받아주시며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 토록 자랑했던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가지는 거룩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용서와 축복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을 수 있겠나? 원래 믿음의 사람은 큰 일 앞에서 더 의연해 지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기 바래. 주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결과를 주실 거야. 고등부 선생님들도 그 결과에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전해줄 광고가 있어. 시험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대학부에서 우리들을 위한 작은 행사 - Open House - 를 준비하고 있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선배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래. 대학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은혜의 시간을 기대하자.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신앙이 내 생명의 힘이 되기를...



유재윤 성도 가정(1교구)

사실 처음 서울교회에 왔을 때는 일단 집 근처니까 한번 가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수도권으로 거처를 옮긴 뒤 바른 교회를 찾아보겠다고 이미 여러교회를 돌아다녀 본 터라 이 교회는 또 어떻게 관찰자의 심정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간에 다녀본 몇몇 교회에서는 적잖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가 완전할 수 없지만 그 실망감이란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닌 교회 전체가 추구하는 흐름, 단적으로 예배시간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세와 말씀의 내용에서 세월이나 시대와는 분명히 구분돼

야 할 '교회의 순수성'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인지 그저 종교적 감성을 지닌 종교문화인들의 모임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회에서의 몇 주간의 느낌은 참 '바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접한 이종윤 목사님의 설교는 미로 속에서 이정표를 찾은 것처럼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어서 머리만 커지고 마음만 굳어져 어떤 좋은 말씀의 씨앗이 마음의 땅위에 떨어적도 스며들지 못하고 돌처럼 튕겨내던 것이 요즘 나의 모습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굳어진 마음 받을 되갈아 있어야 될 때가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새가족부 8주 과정은 처음엔 거추장스럽게 느껴졌지만 막상 다녀보니 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에게도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 마치 유년주일학교로 돌아간 것처럼 누군가의 보살핌이나 인도함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당혹감. 선생님께서 아는 체만 해줘도 즐겁고 전도사님의 따뜻한 눈길에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순진함이 탐색으로 가득 찼던 시선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머리에 이고 있을 때는 다만 짐에 불과한 것처럼 신앙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힘이 아니라 짐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의 신앙은 체계 힘이 된 게 아니라 머리에 이고가는 부담스러운 짐이었지만 앞으로 서울교회에서의 생활은 부담스럽던 짐을 내려놓고 생명의 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고지고 가는 신앙의 보따리가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찬양대 양성반을 마치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유명호 성도(1교구)

시편기자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이유 그 자체이자 또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찬양대를 섬기었으니 했수로 헤아려 보니 약25년 이상이 되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합창부에서 여러 가지로 지도도 받았지만 최근에 서울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찬양대 섬김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최선을 드린 것 같지 않아서 반성을 해보는 요즘입니다. 저희 가정은 친구 강석우 집사의 인도로 지난 4월부터 서울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은혜 충만한 목사님의 말씀과 성도님들의 충성스런 봉사에 하나님이 참 좋은 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셨음을 매일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찬양대를 봉사하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연습하여 하나님께 최상의 찬송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지 못하였던 자신을 돌아보며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교회에서 찬양대 양성반이 생겼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참가하여 호흡법에서부터 시작하여 악보 보는 법, 지휘 보는 법에 이르기까지 찬양대원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이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무조건 소리내어 부르던 되는 줄 알았는데 악보와 지휘자를 겸하여 보며 호흡과 발성의 이론을 생각하면서 부르니 찬양이 더욱 은혜롭고 쉬웠습니다. 저희와 같이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지도를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의 배려로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모두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박 집사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최선을 다해 1시간 반 동안은 은혜롭게 지도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지만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하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받은바 은혜와 그동안 닦은 실력을 통해 봉사의 열매도 맺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그동안 지도해주신 박집사님과 위하여 기도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각부서 내 전열기 및 가스기구 사용요금

동결기를 맞이하여 현재 각 부서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커피포트를 비롯한 전열기(전기방석, 할로겐 히터), 가스 조리기구(블루스타) 등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와 개인 안전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주일 날 모든 음료와 간식의 섭취는 반드시 8층 만나 홀에서만 가능하다. 모든 부서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 열기구 및 가스기구는 사무국에서 수거하여 보관하게 된다.

오늘 찬양예배는 청년부 헌신예배로 드린다

오늘 찬양예배는 청년부원들이 주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다. 청년부원들은 찬양예배시간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온전한 헌신예배가 되도록 한다.

등 정

■ 금주의 식사: 조응식 집사 · 유명석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Y 106.9M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3 사명자 대회 기간 중 사명받고 사명따라 행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입시생들을 위하여
3. 목회자 신학세미나, 경로대학, 주부대학, 성경대학 등 열린프로그램을 위하여
4.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